

임희웅은 … 1933년 태어난 임희웅 제7대 포교사단장은 1957년 해병대 해병학교를 졸업하고 해병소위로 임관했다. 1979년 조계사에서 수계 받았으며 1996년 제1기 조계종 포교사로 2007년 조계종 전문포교사로 임명됐다. 임 단장은 16년 동안 군법당 법회(연 29회), 서울 구치소와 영등포 구치소에서 연 10회 이상 교정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2007년 제19회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했으며 2013년 포교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종교화합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위병소 앞에 플래카드가 걸리고 나서 신문 등에 소개가 되며 화제가 됐어요. 이후 성당, 교회와 관계가 좋아졌어요. 호국백일사 사례를 계기로 조계사 등 많은 사찰에서도 성탄절에 플래카드를 걸게 됐습니다."

임 단장은 2010년에는 6대 단장으로서 포교사단 활동의 전면에 나서게 됐다. 임 단장은 6대 단장으로 있을 당시 조직을 정비했다. 대전、충청 지역단, 부산、경남지역단 등 권역별로 묶여있던 지역단을 분할해 세분화 했다. 회계 전산화를 도입하고 인트라넷을 만들어 공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7대 단장으로는 무소유실천운동본부를 발족해 서울시 지원을 받아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등을 펼치는 등 비영리 활동을 겸한 포교에도 나서고 있다.

"포교사단은 한사람의 힘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각계의 다양한 포교사들이 힘을 모으고 합쳐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교사단이 지금까지 든든히 자리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포교사들의 원력 덕분입니다."

부인과의 사별, 포교원력으로 승화시켜

포교사단이 출범한 이후 임 단장에게는 시련이 찾아왔다. 그를 불자의 길로 인도한 아내와 사별한 아픔이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 줬어요. 그만큼 빈자리가 컸기에 아내를 보내고 나서 더욱 열심히 포교활동에 매진했던 것 같아요."

임 단장은 이번 포교대상 시상식을 앞두고 주최 측에 수상영상 속에 아내, 그리고 무진장 스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주도록 부탁했다.

임 단장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포교활동을 해야겠다' 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인터뷰 중 임 단장은 지갑에서 빼곡히 도장이 찍힌 조계사 신행카드를 꺼내 보였다. 임 단장은 바쁜 포교활동 중에도 빠지지 않고 매달 조계사에 아내와 가족을 위해 인등키고 있었다.

집안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지만 임 단장은 수행으로 이를 극복했다. 임 단장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108배를 시작했다. 그 이후 하루 일과를 살폈다.



임희웅 포교사단장과 무진장 스님, 그리고 임희웅 포교사단장의 아내.

이 밖에 임 단장의 의지처가 된 것은 〈금강경〉 독송이었다. 임 단장은 목욕탕의 사우나에 가서도 반야심경 1독을 사우나 시간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경전 마니아' 가 됐다.

"이동 중에는 항상 핸드북으로된 〈금강경〉을 읽습니다. 금강경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경전을 못 읽을 때는 속으로 반야심경을 읊습니다."

임 단장은 "수행은 성불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을 밝혀주는 것이 경전"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삶은 무명이란 벽에 막혀 있어요. 경전을 읽는 것은 그 벽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일단 구멍이 뚫리면 벽 저편을 볼 수 있어요. 평생을 가도 구멍 하나 못 뚫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뚫어야 해요."

임 단장은 "각 개인이 소의경전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단장은 "자신이 수지 독송하는 소의경전을 매일 읽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한다"고 말했다.

여생도 포교사로 매진할 것

임 단장은 "나날이 사회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단장은 포교사단 일을 하면서 흩어진 포교사들을 조직화 한 것이 가장 보람차다며 옛 활동을 술회했다.

"초장기 포교사단에서 선장 역할을 하던 임원들이 모두 힘들었어요. 사실 포교사들의 일은 자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선 서로 즐기고 있어요. 만나면 서로 웃고, 사실 불교계 단체 중에 임원 선거 등으로 내홍을 앓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임원을 감투가 아니라 봉사직이라고 생각하기에 포교사단에서는 그럴 일이 없어요. 마음이 열려 바라는 것이 없기에 서로 마음이 편합니다."

임 단장은 이러한 이들이 있기에 한국불교의 미래는 밝다고 전망했다.

"저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인재불사에 보다 더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설불사는 한계가 있어요. 늘려놓은 시설 유지하기 위해 기복 불교로 더욱 흘러갑니다. 사람을 키워서 불교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임 단장이 추구하는 포교는 무엇일까. 임 단장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성포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싸이의 말춤이 먹히듯이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감성적인 포교방법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불교에서는 일반 대중들이 추구하는 명예, 부 등 '상' 을 버리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지 말고 공정히, 또 주변사람들을 함께 살피며 사회를 밝히는 이로 되어달라는 겁니다."

임 단장은 이러한 포교를 위해서는 물과 같은 하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심은 물과 같아요. 물이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듯 하심으로 포교해야 합니다. 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모습,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하나하나가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진정한 포교 아닐까요. 저도 이제 한명의 포교사로서 저의 삶을 통해 포교하도록 더욱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어릴적 포교사 한마디가 불자의 길로

고등학교 재학 당시 불교와의 인연

누군가 출가를 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다. 다시 생각해도 스님이 된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의 불교와의 인연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결혼 후 여섯명의 딸을 낳으셨다. 당시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할머니는 아들을 못 낳는다고 어머니를 아주 심하게 구박하셨다. 어느 날, 이런 어머니를 안타깝게 여긴 이웃집 아주머니는 어머니를 끌고 절로 가셨다. 그리고는 큰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스님, 얘는요. 아들을 못 낳아요. 벌써 딸만 여섯이나 낳았어요.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기가막힌듯 스님은 한참을 쳐다 보시더니,

"글쎄,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나? 혹시, 삼천배를 하면 부처님이 잠깐 돌아보시기나 하실지…"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저녁 늦께까지 삼천배를 하셨고, 부처님이 감응하셨는지 결국 아들을 일곱 번째로 낳으셨다. 그것도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날에. 그이후로 우리 식구들은 똘똘 뭉쳐서 절에 다녔다. 70년대는 시골교회에서 크리스마스때 먹을 것을 많이 주었다. 그것을 먹으러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다녔다. 하지만 사탕과 초코렛을 준다는 수많은 유혹을 우리 가족은 뿌리칠 수 있었다. 혹시라도 일곱명 중 한명이라도 교회에 갈라치면 첫 번째 대장한테 우리는 부처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단단히 받았다. 그러다 고등학교를 혼자 유학을 떠나 원주에서 생활하게 된다. 고등학교 1학년 봄, 토요일 오후 우연히 들르게 된 법응사 고등부법회에서 법문을 듣고



그림 · 박구원

가슴가득 환희심을 느낀다. 매주 토요일 법회에 다니면서 반야심경강의를 듣고 '불교는 과학이다' 는 확신을 가지며 불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 우리 사찰의 고등부는 포교주간이 있었다. 그 주에는 다른 친구들을 포교해 오는 것이다. 당시 신심이 가득찼던 나는 아침 조회시간 전에 각반을 돌면서 "너희들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생각해 보았니? 인생을 잘 살고 싶다면 우리절에 오기바래…" 하면서 나는 나름대로 포교를 하여 친구들을 법회에 나오게 하였다. 불자로 소문난 나에게 친구들은 불교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나 나에게 질문을 하였다. 가끔 모르는 것에 막힐때면 쉬는 시간을 기다렸다 법사님께 전화를 걸어 여쭤 보곤하였다. 이런 나를 법사님을 참 기특해하셨다. 법회 때 나를 칭찬하시는 법사님을 '나는 당연한 것을 했는데 왜 칭찬을 하실까?' 의아해 했던 기억이 난다.

어느 날 법사님은 고등부 법회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희들은 한국불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한다. 한국불교는 고목나무이다. 고목나무에는 새들이 오지 않는다. 지금부터 원력을 세우길 바란다." 나는 당시 법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을 한다.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된다면 나는 어린이 포교를 해야지. 아마도 그것이 한국불교를 젊게 만드는 것일꺼야' 하고 결심했던 기억이 난다.

아마도 그것이 씨앗이 되어 지금까지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나에게 이런 원력을 심어준 분을 스님이 아니였다.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게 되는 이름 "남화여 법사님". 당시 법사님은 공직에 계시면서 토요일마다 청소년법회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들의 마음에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심어주시려고 열정적으로 노력하셨다. 불교를 너무도 사랑하셨던 마음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전달되어 결국 한명, 한명 큰 원력을 갖게 되었다.

나는 종종 제가포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 분이 생각난다.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받은 사랑과 영향을 생각하며 모든 포교사님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보낸다. 현재 한국불교는 포교의 위기에 서있다. 법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린 우리에게는 전부였던 것처럼, 스님과 포교사님들의 법문 한마디 한마디는 부처님의 혜명을 잇는 동아줄이 된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